

자마미 문워크

제 2 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경유하여 역사가 깊은 항구의 경치를 조망하는 상쾌한 언덕 오르기

경로: 자마미항 - 다카쓰키야마 산 - 자마미항

거리: 3km(왕복)

소요 시간: 40 분

난이도: 쉬움

개요

이 워킹에서는 자마미항에서 평화의 탑이라는 전쟁기념비를 경유하여 다카쓰키야마 산 전망대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해발 0m 인 곳에서부터 137m 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따뜻한 날에는 오르막길에서 상당히 땀을 흘리므로 주의해주세요. 편도 약 20 분의 하이킹이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느긋하게 즐기고 싶어질지도 모르니 시간을 넉넉히 잡고 오기를 추천합니다. 액티비티의 이름은 다카쓰키야마 산의 ‘달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에서 따왔습니다. 달 표면의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정

바다를 등지고 내륙을 향해 걸어서 자마미손 사무소와 초등학교를 통과하여 자마미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10 분 정도 걸으면 이미 산을 오르고 있을 무렵인데, 거기에서 걸길로 조금 나아가면 평화의 탑에 도착합니다. 평화의 탑은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1,200 명의 섬 주민과 군인의 위령비로서 자마미를 내려다보는 목마항 숲속에 세워졌습니다.

전몰자 위령비를 찾은 다음에는 원래의 길로 되돌아가서 앞쪽에는 넓은 납작돌을 깔 길, 오른쪽에는 계단이 보이는 곳까지 5 분 정도 더 산을 오릅니다. 어느 경로든 다카쓰키야마 산 정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쪽 경로로 올라갔다가 다른 쪽 경로로 내려와서 일주하는 게 좋겠지요.

산꼭대기에서는 동쪽에서 평온한 아고노우라 만의 파노라마 경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류큐 왕국 시대에는 오키나와와 중국 사이를 다니는 뚝배가 여기에 닻을 내리고 순풍을 기다렸습니다(전망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고노우라 해변 산책도 추천합니다). 서쪽에는 우아한 호를 그리는 후루자마미 해변이 보입니다.

몸을 조금 식혔다면 왔던 때와 같은 길을 내려가서 자마미로 되돌아갑니다.

전신운동을 하고 싶다면 항구의 기념품 가게에서 노르딕 워킹 스틱을 빌릴 수 있습니다.

SUGGESTED PHOTO(S)

1. Picture from Summit
2. In town pictures
3. Turn off to Tower of Peace
4. Tower of Peace
5. Both paths
6. View to East
7. View to West